

#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현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2019년 3월 5일 화요일 (음 1월 29일)

제22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전주 특례시 지정, 전북 발전 돌파구

# 특례법 개정안, 광역시 없는 도 50만명 이상 중추도시로

정부는 최근 30년 만에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안대로라면 수원과 용인·고양 등 수도권과 경남 창원 등 경남권 4개 기초 지자체만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지역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주시 등 대도시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중추도시, 경기도 성남시 등 인구 100만 명이 안 되지만 행정수요는 많은 대도시들도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주시 발걸음이 빨라질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편집자 주

▲특례시는 '광역시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 전주시는 특례시 개정안 기준을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로 바꾸고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설립 등 행정권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회를 비롯한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전주시 특례시 지정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대 전주시 생활인구는 90만118명, 전주+완주 생활인구는 103만2993명으로 각각 조사돼 동일생활권인 전·완주의 행정실수요가 광역시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전주는 해마다 1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로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아울러 전주는 또한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광주·전남'과 같이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의 예산배분과 기관설치 등에서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지역 간의 간극을 좁히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해결책인 셈이다.

이제는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존폐위협에서 벗어나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물론 미래 전주의 운명을 바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광역시가 없는 전주가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돼야 하는 이유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속한 시일 내에 특례시 지정이 확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제 전주시의 담배도 도전은 또 한 번 내디뎌겠다"며 "전주가 전북발전을 이끌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 법안 심사 앞둔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도내 지방의원 건의안 채택으로 특례시 지정 힘 실어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신 특례시 지정 요건에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명 이상 중추도시'를 포함시킨 지방자치법 개정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주가 특례시로 지정 받아 △부시장을 2명까지 둘 수 있고 △시립박물관·시립미술관 승인권한과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해제권한 △자체 연구원

▲전주시는 특례시에 반드시 지정돼야... 진정한 지역균형발전 지난해 11월 말 현재 전주시 주민등록상 인구는 65만2879명이다.

하지만 실질 행정수요는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자녀 교육 등을 이유로 전주에서 살거주하는 생활인구와 공동생활권인 완주군 생활인구 등을 합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KT가 지난 10월 전주+완주 생활인구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또 문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한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한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각 방문국과 양자 차원의 실질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문 대통령, 10~16일 브루나이 등 3개국 국민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 일정으로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7일간 브루나이·말레이시아·캄보디아 등 3개국을 국민 방문한다. 뉴스에 따르면 김의경 청와대 대변

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한다. 하사날 불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미세먼지로 어두운 도심

전주시의 미세먼지농도가 매우나쁠 수준이 이어지고 있는 4일 전북도청 옥상에서 바라본 전주시내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뿌옇게 보이고 있다.

## 한유총,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

"이달 5일부로 각 유치원, 자체 판단해 개학해달라"  
교육부 "학부모 불편 최소화토록 관계기관과 협력"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 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3법' 주요 내용인 에듀파인 도입, 폐원 시 학부모 등의 3분의 2 이상 의무화,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 인정 등에서 팽팽한 팽팽선을 달리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들과 유아들이 감당하고 있다.

다행히도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3월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해 개학해달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하는데 동참한 사립유치원 수가 365곳(4월 기준)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4일부터 개학 연기에 돌입한 사립유치원이 1,533곳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수치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연기는 불법이라며 개학 연기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유 장관은 4일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상황실을 방문해 "개학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며 "정부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부모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강행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도교육청은 전북사립유치원과 관계에서 불필요한 자극보다 결론과 신뢰를 중시한다"며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는 절대 있을 수 없고, 나아가 자발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연기로 긴급돌봄을 신청하면 인근 국공립유치원에 우선배치해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4일부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날 개학연기 철회로 학부모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장은성 기자

## 전주시, 2030 문화비전 시민 원탁회의 의견 수렴

전주시는 4일 삼천문화의 집에서 시민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30 전주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회의는 지난 1년 간 추진된 '2030 전주 문화비전' 수립용역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3월 한 달간 시민원탁회의와 시민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원탁회의에는 평소 문화 활동을 통해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온 시민들이 참여해 각자가 원하는 '문화도시, 전주의 모습'이 '2030 전주 문화비전'에 담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첫 원탁회의에서는 생활 문화 활성화를 통해 '문화가 있는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 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시민 원탁회의는 이날 삼천문화의 집을 시작으로 서하동 예술마을(5일)과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회(6일), 한국예총전주지회(8일), 전북대학교(20일) 등에서 개최된다. /송효철 기자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